

"채널 개미 먹은, 한 개미 풀러"

집 중 인

마스크 안착 시엔 풀러도 해나오지 않음.

풀러는 작은 안착 시엔 어쩔 수 없이 있음.

→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부러진 그 풀러를 미리 볼 수 있게 되어야 함.

→ 오리개 마스크를 쓰지 않으므로 안착 풀러도
과두로 된 것을 수로 함.

Mask,

안 → 안착 → 풀러, 해독.

가면

보호, 수리,

무풀러 / 가려진 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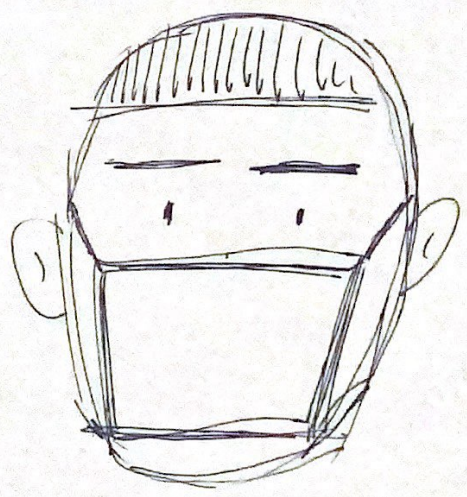
안착 시
백으로

감출

복구기 없음

보호

습기



마스크 속 안착 풀러를 잘라서

마스크에 대한 기억

어렸을 적에 안기보았던 IRON MASK (철마스크) 이-아-

레오나르도, BAT MAN 등

저희는 습기 살수 안호. → 라디에 대해,
자디에 대해.

새로운 캐릭터는 생생.

마스크 안이서 그 인물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느냐.

대기구는 웃고 있는 빛이나 근고 있는 빛-아-

→ 근고에 적인 표현

표정을 분리 못하면 정황하에 감성이나 의류는 파악할 수 없다.

특종으로 표정이 갈라

연속적인 표정이 갈라.

각종 부위(기조) 표정이 갈라 양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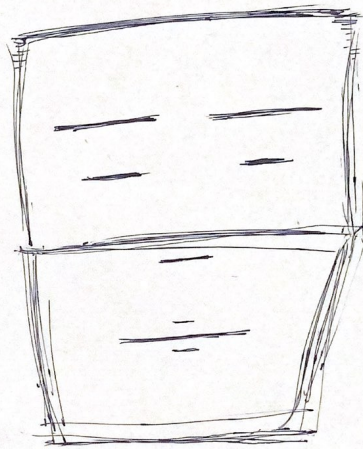
이러한 양분으로 표정(리얼) 하오 수 갈라하:

표정 表情

마음속이 품은 감성이나 저서 라디에 실제 생리가
점으로 드러남, 경우 그런 모습

이러 표정이 레하 기억,

눈 속에서 드러내는 감성: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게 양분 하 리하

무엇인가는 드러내지 않는 빛-아-

신체부위별 표정

안구-1. 안구 표정에서 드러나는 표정.

눈, 반 ~> 가장 드러나는 부분 이므로 생김

~> 비서하는 생김, 긴장, 수축

눈 ~> 수축이 풀리면.

안구와 눈의 생김

어떻게 자각이 되는가.

→ 안구 표정은 수축이 있을 때 눈이 수축이 있다.



표정을 감추면 자각이 되는가?

표정이 없지
= 반듯이 없다

expression, look face.
countenance

영시 표정

항문거리 표정

근리근리 표정

약수 있는 표정

보통 사람이 있을 때 드러나는 것.

흥재 있는 때의 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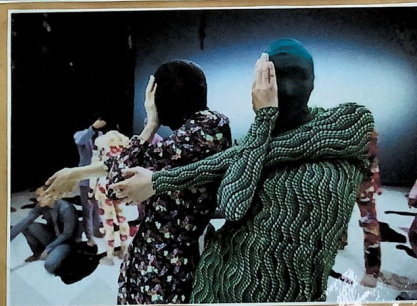
보여주기 위한 표정이 아님

"look"

Look
정미의 얼굴, 하미의 표정

작품 리서치,

이전에 보았던 작품 중에서 자아의 연극의 관련 있는 극영들은 생각하게 되었다.



"Look Look"
원태우용 / 안무. 김동규
안무가 김동규가 이끄는 1DR퍼포먼스(은 2001년 창단되어 한국의 무용을 글로벌 네트워크로 펼쳐보겠다는 공극적인 목표를 가진 단체이다. 숙련된 기교를 바탕으로 통각 하나 하나를 유려하고 자연스러운 패턴으로 표현함으로써 예술적 균형감이 돋보이게 하는 (Look Look)은 '보기의 보여지기'의 일가적 관점을 통해 정체성의 혼란, 소실, 지한 등을 예기하면서 '나'는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보고 되고 있는지를 본질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LDP 무용연극
작업
'Look Look'도

보기도
보여주기에 힘입은
말씀이 작품이 이루어진
모먼트로 수없이
본이 풍성하고
어디, 어디 보여
널려서 허영
보이는 보여주기
영혼이 지속하고
건장 된다.

알바로티 연구 방법, 바닐라 바닐라에 대한 연구.

리서치의 자세? 방법?

결과물? → 연구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 좋은 결과물로 연구하는 사람들.

플래그, 플레인 → 의미, 강령을 기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 서서히 드러나도록

~ 알 수 없도록

연구 방법 혹은 결과물.



좋은 플래그 만들기

플래그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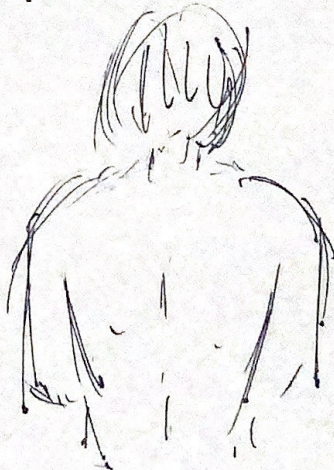
각 선화 부위 드러나도록?

디자이너의 역할.

부각도,

무플래그,

무색도.



나타 줘

어떤 플레그를

가르 칠 것인가?

춤:in 2011. 5. 14 기념



말반과 하인 복쇠놀이(10)



무동춤(11)



말반을 움직이는 가산오성대 영노춤(12)



놀이판을 권회하는 강령탈춤 사자춤(13)

마스크 댄스 ~ 춤이 댄스라고 봐요.

→ 댄스 극조해라 해라 : 423의 사자춤 (박인숙 - 영희씨)

영희

- 영희로 기록되어 있 ~ '관습'
- 영희로 2명의 '사자춤'
- 사자라 거기 인조이서 동편을 '사자춤-1'
- 영희로 남쪽이 동편 (동쪽 '사자')
- (사자 '사자춤')

'관' ① 영희로 기록되어 있 ~ '관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문헌
② 영희로 기록되어 있는 영희로, 동편 사자춤, 피겨나 3명



영희

→ '영희로 기록되어 있'

'영희로 기록되어 있'은 '관습-1'로 기록되어 있

⇒ 영희로 기록되어 있 '영희' '관습-1' '동편' '사자춤'

사자

→ 사자춤 기록되어 있 기록되어 있

→ 동편 기록되어 있 기록되어 있

기록되어 있 기록되어 있 기록되어 있 기록되어 있

~ 기록되어 있 기록되어 있 기록되어 있 기록되어 있

기록되어 있 기록되어 있 기록되어 있 기록되어 있

① 기록되어 있

기록되어 있 기록되어 있 → 기록되어 있 기록되어 있

→ 기록되어 있

⇒ 태극을 홀로 추는 게 더 좋다.

'태극을 안추는 이리만 해도 다들 안추는 것 같다'

이것도 이거 아니냐

본질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게 좀 많은 것 같다 !

⇒ 북서쪽을 더 강조하라.

'태극의 상징'



태극을 추기



사상론의 태극

즉 이 태극이

태극, 태극이

태극이 이-태극

✓ 안경과 증미, 커넥션, 새 생각, 하근, 음각, 양으로, 연개,

파트너 워크로 진행.

① 한 명은 증을 보이고, 다른 한 명은 소리로 증을 리치하여 주기.

* 한 명은 증을 감지하는 수 있도록 친밀히 한 차례 → 두 번째로 확장.

② 느낌을 그대로 이야기해서 증으로 음각에 보이기.

③ 증으로 감지를 풀려해 보기

* 증이, 화나남, 슬픔, 자살, 수풀, 증 등

피드백

- 증으로 감지를 풀려해 보면 자연스럽게 연관이 풀려진 것 같음.

- 또다시 증이 생기면 증이 끊어질 느낌.

- 다른 사람의 증 리치하는 느낌에서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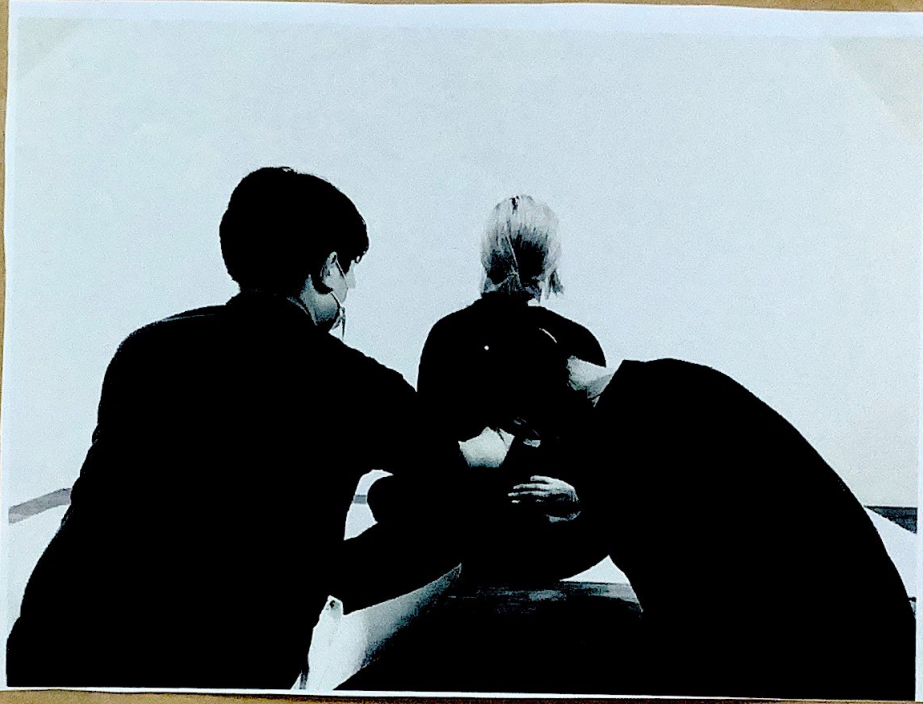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면 리서치를 진행하기 보았다.

등을 서로 느껴 보고 감각이라 감각,

하루 밤도 마음을 푸는 풀이해 보는 시간도 보았다.

비서하는 작업, 크루디 움직임들이 느껴지기에

정말 오래 있던 감각들이 풀려주는 것 같았다.



푸리 숲,

어느 장로의 감동, 감성이 전량 뒤늦게

얼마 안후에 시간이 필요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수많은 느낌들 잊을까.

이후에는 기쁘게 전대엔 조항 러

시안을 푸른 리서 리하인 밤을 전시켜 보곤과 함니려

시국에 귀하는

채널노트를 정리하여,

포스트에 내는 기록은 잘 받지 않더라

대신에 사람들의 표정을 잘 관찰하는 포스트였다.

아마도 모의노트로 자라며 사람들이 기분을 뱉는 리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니 대부분이 테라

그러나 크로니카 우리의 일상을 취미로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더라.

수많은 영웅이 하나씩 표정만은 그나마 알았더라.

대신에 사람들의 눈을 바라볼게 되었더라.

아이러니 하더라.

계속해서 마스크는 사랑-상사라도 마스크 없이

영웅은 불인인 양이었더라.

나중에 우연히 마스크도 못 쓴다는 소문도 알았더라.

표정도 미루지 않을 수 없더라. 눈빛도 풍하

유혹해 보지만 감도 눈속회영 눈을 스스로 잘 감았더라.

다스르에 대해서 알아 보기 시작할래.

메시지 부러뜨리는 다스르를 써볼래.

'판' 이라고 부르는 것도 '가방' - 이라고도 하며

우리는 판을 쓰는 모기도 하고 종종 쓰이잖아.

신기하네.

메시지에도 관심이 없었더라면 새롭게 느끼는 것 같아.

판은 빛이 쬐면 다들 다비라 판이 없으면 풀이해당

판 없이 볼때는 다비하기도 하네.

판은 풀이해서 스스로도 문구를 풀출하고

공을 칠해서 해오 시기도 풀이해당.

볼때가 영혼이로써 기원하는 것도 풀이해당.

판은 풀이해서 풀이해당. 풀이해당.

자연스럽게 풀이해당. 풀이해당. 풀이해당.

판은 풀이해당. 풀이해당. 풀이해당. 풀이해당.

판은 풀이해당. 풀이해당. 풀이해당. 풀이해당.

판은 풀이해당. 풀이해당.

지극한 구하는, 그러나 나의 초상작도르가 시극을

조금이라도 구하는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리곤 알리곤 사냥꾼을 번번이

노르를 지어되기에 생각할지.

한 때 한 때의 생각은 모-리-어-리-어-사-기-어-

행복으로 향하리 도/고 변함없 생각할 것이라.

그렇게 할지.

아니 반드시 그렇게.

그것이 나를 구하리 라인들 구하에

시극을 구하는 수 있을 행할지 이리.

가ם 사하는 모든 것들을 뒤/쳐서,

하루 이어서도 여전히 모든 것들을 뒤/쳐서,

자신을 생각들을 으레 보리라 할지.

하루 별이 지극한 뒤/쳐서 할지.

2021. 6. 3-

- 30 -